



중남의 재발견 2

지역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전략

조창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은 매년 9%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방식, 소비생활 등이 개혁개방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농산물 소비패턴은 곡물중심에서 신선과 채류, 육류 등 소득탄력적농산물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여파로 소득구조가 불균등해짐에 따라 고소득층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 시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관리하의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현재는 소비자 주도형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고품질의 소득탄력적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서해연안지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증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구조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증가로 축산물, 수산물, 채소 및 과일류 등 고품질 위주의 농산물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농산물의 총체적 수급상황은 수급

균형을 유지하거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저품질의 농산물 생산비중이 높아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시장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생산은 증가되었지만, 소득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곡류를 제외한 채소, 육류, 식용류, 과일 등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적 농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빈곤층은 밀, 옥수수 등의 소득비탄력적 기초식량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농업생산을 조망해 보면 중국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이 개방되어 수출물량이 증가될 것을 겨냥하여 동북3성을 중심으로 조생종인 인디카 품종에서 고품질인 자포니카 쌀로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의 저품질 인디카제통 쌀의 보호가격 구매제한을 발표하는 등, 쌀의 품질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고품질 쌀 재배면적의 증가가 예상됨.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시장을 겨냥해 과실류에 대한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곡물 수입이 확대되면 기존의 곡물 재배면적이 경제작물인 과실류 재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WTO 가입으로 장기적으로는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클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품질위주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과잉기조를 보이고 있는 곡물류의 생산을 축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원예작물, 축산물, 농산가공품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WTO 가입과 곡물류의 시장접근분량 설정, 수출보조금 철폐에 따라 곡물류의 과잉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구조조정과 작목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농업은 생산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지만 품질이나 규격, 저장관리 등 농산물을 고품질화하고 상품화하기까지 아직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품질경쟁, 유통관리 기술에 관한 우리와는 아직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 아울러 중국 농업의 농산물 생산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데는 적합하지만, 까다롭고 다양하며 변덕스러운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소득수준의 제고로 고품질의 농산물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시장의 공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서해연안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첫째, 수출가능한 지역농산물 수출 품목 및 수출대상지역 선정, 둘째, 중국 농산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셋째, 중국 농산물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선행, 넷째, 고품질위주의 지역농산물 차별화 전략 수립, 다섯째, 지역농산물의 홍보강화, 여섯째, 중국 및 중국 진출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유통망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농산물의 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생산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시장을 목표로 농업생산을 특화하고 품목별 전문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함. 지역별 특화방향을 살펴보면 인천·경기권은 도시근교의 이점을 고려해 첨단시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시설원예 농산물 단지로의 조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충남권은 배를 주력품목으로 한 과수전문특화단지와 인삼 및 인삼제품을 이용한 인삼관련 전문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라권은 배 및 김치가공식품, 고추장, 된장 등의 가공식품생산단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농업 및 농

업기계류 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농업의 육성 및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천, 평택, 보령, 군산, 목포항을 대중국 농산물 수출전진기지로 개발하여 물류비용의 절감을 극대화 해야한다. 셋째, 산·학·연의 합리적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학·연의 공조체제를 통해 향후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에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많은 중국 내 비관세장벽을 청취·발굴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출농가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알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넷째,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중장기적인 수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농산물 수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은 지피지기에서 세워져야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중국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수많은 장벽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중국농산물 시장 진출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지혜를 모아야할 때이다.